

쉬쉬하던 중국 에이즈 방어에 총력전

글_ 강호원 · 세계일보 베이징특파원 차장



중국에 '현대판 흑사병'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확산을 막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중국의 에이즈 감염인은 벌써 84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면 2010년에는 중국이 '에이즈 대국'의 불명예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중국에는 에이즈 방어 총력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농민들이 매혈과정에서 2만5000여 명이 에이즈 집단 감염된 허난(河南)성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피를 판 적이 있는 수십만 명에 대한 에이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에이즈 척결운동을 캉아이즈전(抗艾滋戰)이라고 부르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국 주요 언론매체에는 연일 에이즈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에이즈 전쟁은 지난해 11월말부터 시작했다.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에이즈 환자가 수용된 베이징의 여우안(佑安) 병원을 전격 방문, 에이즈를 척결할 것을 지시했다. 정치적인 권위로 말하자면 과거 전제국가시대의 황제에 버금갈 정도의 권위를 지닌 중국의 국가주석이 에이즈 병원을 찾은 것은 그

만큼 중국에 무서운 속도로 에이즈가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곳곳에 에이즈의 위험을 알리는 광고판이 설치되고 콘돔 나눠주기 캠페인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공항기차역과 같은 공공장소는 물론 일반 유흥업소의 화장실에도 콘돔이 비치되고 있다. 헌혈자에 대한 에이즈검사와 에이즈환자에 대한 무료치료도 시행됐다. 이 같은 대규모 에이즈 캠페인은 뒤집어 보면 중국의 에이즈가 예상롭지 않음을 말해준다.

은폐 일관하던 중국, 에이즈 위험 신호에 대대적 대책 마련 중

중국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광저우와 홍콩 베이징을 거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을 때에도 중국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에이즈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에이즈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 그동안 주요 도시와 농촌 곳곳으로 번지고 있었다. 중국에서 에이즈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 전이다. 2003년 말 우의(吳儀) 부총리는 중국 내 에이즈 감염인이 84만 명이며 이 중 8만여 명이 환자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중국에는 1,547명 중 한명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몸속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 수치도 적은 수가 아니지만 2년 동안 얼마나 에이즈 감염인이 늘어났는지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중국 에이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10년



에 이르면 에이즈 감염인이 100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오면 중국의 인구증가를 감안할 때 110~120명당 한명이 에이즈 바이러스 몸속에 갖고 있게 된다. 중국정부가 전례 없는 에이즈와의 대규모 전쟁에 뛰어든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국 유흥업소는 에이즈 위험 지역

그러나 더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에이즈가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루 1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도 30만 명을 넘어섰다. 유동인구를 합하면 최소 50만 명의 한국인이 중국 땅을 밟고 있다. 앞서서만 코 당을 거리에 있는 베이징에는 유동인구를 포함, 약 10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 이처럼 불어난 중국 내 한국인은 5년 뒤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에이즈 확산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에서 만연하는 에이즈 사태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에이즈 확산을 막지 못하면 국내로 에이즈가 번져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최근 이상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국내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베이징과 상하이, 칭다오처럼 한국인의 왕래가 잦은 중국 지역에서는 유흥산업이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대형 술집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들 술집은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조선족과 중국인이 여는 술집들이다. 최근에는 아예 한국계 자금이 중국 내 유흥산업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들 술집에서 술만 마신다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문제다. 이들 술집을 찾는 사람들은 에이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상황을 곰곰이 따져보면 술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에이즈 소굴을 찾아드는 것과 다름 아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중국에는 1,547명 당 한명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몸속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농촌보다 한국인과 접촉이 많은 중국 도시지역에 더 많은 에이즈 감염인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중국의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몇 명당 한명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을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결과는 발표된 적이 없지만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무서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 접대부 중 에이즈 감염인 많을 것으로 예상

중국의 에이즈 환자는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정부가 지난 해부터 에이즈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주기 시작했지만 선진국과 같은 관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정부의 재정 상황이 탄탄하면 얼마나 탄탄하겠는가. 중국 정부는 에이즈 치료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을 만큼 여유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에이즈 환자들은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면 죽음을 맞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렇다 보니 에이즈 감염인들은 모든 것을 숨기고 돈벌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에이즈에 감염된 중국 여성은 어떤 길을 택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곳은 술집이다. 아마도 그들은 절망에 빠진 채 이를 악물고 술집으로 나오고 있는지 모른다. 이 같은 현상은 가슴아픈 중국의 현실이다.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마다 수백 군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대형 술집은 에이즈 위험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중국에는 1,547명당 한명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몸속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농촌보다 한국인과 접촉이 많은 중국 도시지역에 더 많은 에이즈 감염인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중국의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몇 명당 한명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을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결과는 발표된 적이 없지만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무서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